

전치형

로봇에게 권리가 있다니, 혹은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니, 혹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저 소설과 영화 속 설정 정도로만 들리는 이런 질문을 학술적으로 논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다. 사람들이 로봇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리를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과 분석을 하기도 하고, 인간과 물건 사이에서 로봇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철학적으로 고찰하기도 한다.

주요 논의 내용

- 우리 사회에서 로봇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 로봇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
- 인간은 로봇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강연에서 나는 로봇에게 권리가 있다/없다, 혹은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없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또 ‘권리’에 관한 정확한 법적, 철학적 정의를 활용하여 로봇의 권리를 논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권리’라는 말을 매우 넓고 느슨하게 해석하여, 로봇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즉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 한다.

로봇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로봇은 무엇/누구보다 낮거나 못한 존재인가. 로봇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하려는 시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에 등장하는 ‘로봇 3원칙’(three laws of robotics)이다.

첫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부작위를 통해 인간이 해를 입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둘째,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셋째, “제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로봇공학과 SF 문학과 모두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원칙들은 1940년대에 출판된 아시모프의 소설 속 장치이며, 현실의 로봇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로봇 관계를 설계해야 하는 로봇공학자나 로봇 관련 윤리 문제를 고민하는 학자는 누구나 이 3원칙을 언급하고 여기에서 영감을 얻는다. 이때 우리는 로봇을 어떤 존재로 상상하고 있는가. 이러한 원칙을 통해 규정되는 관계는 과연 현실에서—사람과 사람 사이이든, 사람과 로봇 사이이든—구현될 수 있는가.

시간을 약간 거슬러 1920년대로 가면 로봇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초기 상상을 엿볼 수 있다. ‘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카렐 차페크의 1920년 희곡 <R.U.R. 로쭈 유니버설 로봇>은 로봇을 인간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그린다.

극의 첫머리에서 로봇들이 일하는 공장을 방문하는 헬레나 글로리오바는 로봇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펼치는 ‘인권연맹’ 소속이다. 그는 로봇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로봇에게 더 나은 노동조건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봇 회사를 운영하는 도민은 로봇이 값싸게 제작한 ‘인조 노동자’일 뿐이며, 로봇에게는 노동에 불필요한 영혼 같은 것이 없으므로 로봇은 절대 인간과 동등할 수 없다고 믿는다. “친애하는 글로리오바 양, 로봇은 사람이 아니죠. 기계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완벽합니다. 또 깜짝 놀랄 만한 지적 능력도 갖고 있죠. 하지만 그들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전치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공부했다. 미국 MIT에서 과학기술사회론(STS)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 막스플랑크 과학사 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밟았다. 현재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관계, 정치와 엔지니어링의 얽힘, 로봇과 시뮬레이션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잡지 『에피』의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의 자리』, 『로봇의 자리』, 『미래는 오지 않는다』(공저), 『호흡공동체』(공저) 등을 썼다.

차페크의 희곡에서 로봇은 한눈에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인간과 비슷한 외양, 어느 인간에 못지 않은 신체적,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을 인간에게 하는 영혼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온전한 인간에 못 미치는 존재, 따라서 인간과 같은 권리를 가지기는 어려운 존재로 묘사된다. 반면 실제로 개발되고 활용되는 로봇 중에서는 신체적, 지적 역량보다는 그 외양이 인간과 매우 흡사하다는 이유로 인간처럼 대접받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헨슨 로보틱스사에서 얼굴 부분을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하여 개발한 로봇 ‘소피아’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명예 시민권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2018년 소피아는 한국을 ‘방문’해서 한 국회의원과 나란히 앉아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논할 정도로 인간 대접을 받았다. 우리는 그저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로봇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만큼 관대하다.

소피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나 인간처럼 생겼느냐’ 하는 것은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일본의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는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라는 개념을 통해 로봇의 외양이 점점 인간에 가까워질 때 로봇에 대한 우리의 친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가설을 제안한 바 있다. 로봇의 외양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의 외양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대체로 그 로봇을 가깝게 느낀다.

그러나 그 유사성이 매우 높은 어느 지점에 이르면 갑자기 깊은 계곡에 빠지는 것처럼 친밀도가 급락한다. 로봇이 인간과 매우 유사하지만 아직 똑같은 것은 구간에 있어 우리는 모종의 불쾌함이나 섬뜩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불쾌한 골짜기’가 과연 실재하는지, 더 나은 디자인을 통해 그 골짜기를 넘어설 수 있는지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특정한 상태의 인간을 잣대로 삼아 로봇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하려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팔 모양을 본뜬 로봇이 알고리즘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과 인간의 얼굴을 본뜬 로봇이 알고리즘에 따라 무대에서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로봇에게 권리가 있다거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로봇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로봇의 권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명확한 개념이나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그때그때 눈앞에 있는 로봇에게 적용한다. 어떤 로봇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이유로 인간 대접을 받고, 어떤 로봇은 인간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인간 대접을 받는다. 인간 대접을 받는 로봇이 늘어나는 것은 인간 대접을 받는 인간이 늘어나도록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일시
2024년 6월 24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